



김순용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취재_김성환

단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김순용 명예회장, 병협을 중심으로 한 병원들의 단결 강조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병원계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헤쳐 나가는데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병원들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료계의 원로이며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순용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은 이번 인터뷰를 위한 필자와의 만남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병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김순용 명예회장은 의료(건강)보험 실시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1978년 서울대학병원장직 사퇴로 물러난 김흥기 회장의 후임으로 제19대 협회장은 말아 의료보험으로 야기된 당시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80년대 이후의 오너원장 시대의 개막과 정책단체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병원협회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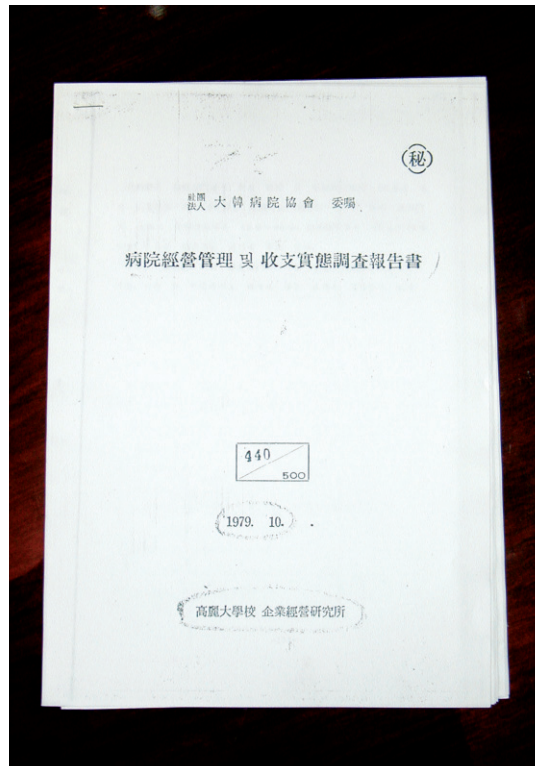
“1977년 7월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은 관행수가, 즉 이전부터 적용해 오던 의료수가의 50-60%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당시 의료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협회는 이를 입증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지요.”

김순용 명예회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한병원협회30년사’의 일부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례로서 협회(30년사 92쪽 하단에서 3번째 줄에 기술된 ’78년 6월 27일 상임이사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조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하고자 병원경영수지분석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확보난과 주변여건 등이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 일단 보류기로 했으며 …’ 라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김 명예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병원협회는 의료보험수가의 적정성 여부와 이의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보험 실시 1년간의 병원경영실태 분석을 의뢰기로 하고 1979년 6월5일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경영분석대상 병원으로는 대학병원이 아닌 서울·부산·전주 등 3개 종합병원과 1개 특수병원을 선정해 되도록 객관성이 있는 공평한 분석이 되도록 유의했다. 그 결과는 1979년 10월에 총 249쪽에 달하는 분석보고서(사진)로 제출됐으며, 당시의 은행예금 금리 연18%를 기준으로 할 때 의료보험수가의 원가보상율은 50-76%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협회는 이 사실을 서류로 작성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 의료보험수가 개정을 건의하고 시정을 약속받았다’ 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병원계가 제기했던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 는 주장은 이후 여러 경로를 통


해 입증이 됐지요. 1977년 7월 의료보험 실시 당시 주무부처인 보사부 장관을 지낸 신현확 前국무총리 역시 1986년 창간된 병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도로 실시된 의료보험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운용되고, 수가 역시 너무 낮게 책정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이후 병원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도산하는 병원들의 비율이 일반 기업들에 비해 수십 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잘못된 의료보험제도 운용과 수가체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김순용 명예회장은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병원협회 역대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의료계의 각종



점을 서로 이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명예회장은 병원협회 이외의 병원들 모임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병원협회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은 전체 병원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그런 일들이 자칫 병원들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명예회장은 이같이 우려하면서 “병원들은 그 동안 병원협회가 한 일이 무엇이나고 하지만 만에 하나 병원협회가 없었다면 병원들이 지금까지 과연 존립할 수 있었을 것이며,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규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겠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병원들이 굳게 결집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젊은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누구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 행사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김 명예회장은 병원들의 단결과 함께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IHF(세계병원연맹)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에 전체 병원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단체 성격상 다소 이해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두 단체가 이해가 다른